

KB STARS Magazines

제 17호

[5R KB경기안내]

01/29 (일) vs우리카드_구미

02/01 (수) vs대한항공_구미

02/04 (토) vs삼성화재_구미

02/08 (수) vs한국전력_수원

02/12 (일) vsOK저축은행_안산

02/17 (금) vs현대캐피탈_구미

〈ALL☆STAR 비하인드컷〉

"이선규,김요한,황택의 경기장 뒤 모습"

〈4라운드 리뷰기사〉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효동 복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2017년 1월 22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열리는 올스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KB 선수들 중에서는 김요한 선수와 이선규 선수가 온라인 팬투표를 통해, 황택의 선수는 선수단 추천으로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기실은 그동안 다른 팀이어서 나누지 못했던 즐거운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황택의 선수는 스파이크 서브왕 컨테스트에 참가하였지만 연습에서는 95km/h, 본선에서는 모두 범실로 아쉬지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KB스타즈가 속한 V-스타팀은 3, 4 세트 남자부 경기가 시작하자 김요한 선수와 이선규 선수를 스타팅으로 출전시켰습니다. 김요한 선수 등에는 '아람용병'이라는 별명을 달고 득점 후 막춤을 추는 등, 무대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황택의 선수는 '신입사원'이란 별명답게 코트에서 점수를(?) 따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막내 처지이던 대한항공의 '아직도 막내' 정지석 선수와 호흡을 맞춰 칼을 뽑는 도깨비 세리머니, DAB 댄스는 물론 현대건설의 이다영 선수와는 '내 귀에 캔디' 음악에 맞춰 아찔한 색시 댄스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친한 사이라고 하네요~?!

올스타전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로 돌아가는 전환점인 동시에 승패의 압박에서 벗어나 배구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B 선수들의 모습, 사진으로 보실까요?



남친짤 대방출..!

ALL

1월 22일, 천안에서 펼쳐진 올스타전!

STAR

KB 선수들의 비하인드 컷, 함께 보시죠!



띠용~!?



부상 조심!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2016-2017 V리그 4라운드 리뷰



소설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계가 있다.



시즌 초반, 출정식 때 팬들과 함께 했던 다짐과는 다르게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016 KOVO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높였지만 하현용, 손현종, 그리고 김요한 선수의 부상으로 팀이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기에 팬들의 실망은 더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비극으로 끝날 순 없다. KB 손해보험의 소설은 이제 막 위기를 지나 절정으로 치달는 현재 진행중인 소설이기 때문이다.

1라운드는 1승 5패로 마감했지만 4라운드에는 무려 4승 2패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만큼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심기일전하는 모습에 팬들은 한번 더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수들 또한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다. 또한 다시 훈련을 시작한 손현종 선수와 이효동 선수의 제대 후 복귀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합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게끔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는 말이 있다.
KB손해보험, 시즌이라는 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자.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이효동 선수



2014-15시즌까지 LIG손해보험에서 함께 했던 이효동 선수가 2017년 1월 26일자로 상무 배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효동 선수는 2012년에 LIG 손해보험 그레이터스로 입단하여 세터로서 코트를 이끌었습니다. 이효동 선수의 복귀로 KB 스타즈는 권영민, 양준식, 황택의 그리고 이효동 선수까지 4명의 든든한 세터진을 구축했습니다. 네 선수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효동 선수!